

“헌정질서 불법적 파괴행위”

영화 1980 감독·배우, 임실 온다

임실 우리마을 영화제 9일 개막... 초창작 '1980' 감독·배우 참여

남원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 채택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5일 제 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의 불법적 파괴행위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 △국회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국가경제와 민생 불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적과 교전 상태가 아니거나 국



남원시의회는 5일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 혼란 상태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음에도, 국회 소집을 막기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초법적 쿠데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윤

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를 단호히 거부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시민과 함께 불의에 항거할 것임을 결의했으며, 남원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60주기 추모식 성료

생애·업적 되새기는 시간 가져

순창군이 지난 4일 향토회관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6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과 가인 김병로 연구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법조계, 학계, 정계, 언론계를 포함한 약 470여 명이 참석해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법조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일제 강점기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물이다.

1887년 순창에서 태어난 선생은 1945년 광복 이후에 법조계에 진출해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으며, 공정하고 엄



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또한 법률 교육자로서 다수의 법학 저서를 집필하며 대한민국 법학 발전에도 기여한 법조계의 거목이다. 추모식은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고인을 기리는 묵념과 약력 보고, 추모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특별 공연으로는 '나의 독립영웅 가인 김병로'라는 제목의 소리극이 무대에 올라, 선생의 험난한 생애와 그의 위대한 업적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참

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열린 학술특강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형 전 대법관이 강연자로 나서, 선생의 독립운동과 법적 철학,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에 끼친 영향을 심도 있게 조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가인 선생의 노력과 철학 위에서 시작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가인 김병로 선생은 순창이 낳은 위대한 영웅이며,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며 "순창군은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지역 특성화 사업 공유회서 '우수 지자체' 선정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지역 특성화 사업 공유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로컬브랜드 사업,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2개 분야 수상으로, 남원시가 공모한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분야는 최종 공모 선정된 37개 지

자체 중에서 남원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방치된 농협 폐창고 리모델링을 통한 발효 테마 마을 카페 조성 추진을 통해 노년이 즐거운 농촌경제 극복 마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 '1980'의 감독과 배우들이 임실군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군은 오는 9일 개막하는 '제6회 우리마을 영화제'의 초창작인 영화 '1980'의 강승용 감독과 배우 김규리와 강신일, 한수연이 함께한다고 밝혔다.

영화 '1980'은 올해 초에 개봉했으며,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감동과 생각을 전하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0' 영화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여 더욱 뜻깊어진 올해 '임실 우리마을 영화제'는 이날 오후 2시에 임실군청 3층 문화강화실에서 개막한다.

영화제는 임실군의 후원을 받아,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협의회장 신대용)가 주최, 임실영화제지원회(회장 이병로)가 주관한다.

개막작으로 상영되는 '가다림'은 임실 주민이 주인공(강강임, 성수면 후촌마을)이고, 배우 배기성(캔)이 출연했다.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한 삶을 외롭지 않게 해주게 된 비밀이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여러 감정과 생각을 갖게 하는 영화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한, 지역 내 청소년과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여 참여한 UCC 공모전(총 출품 10개)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도 상영되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

영화제 마지막 순서를 영화 1980의 감독과 배우가 주민과 함께 영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참여 코너도 준비되어 풍부한 볼거리와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영화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 주민들이 참여해 직접 제작한 영화를 개막하는 영화제에 뜻깊은 영화가 초창작으로 선정되어 감독과 배우가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마을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행사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국무총리 표창

임실군과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노사문화를 잘 선도하고, 정착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2024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선 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시상식'에서 군과 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초자치단체 그룹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인증함으로써 함께하는 노사문화를 공식사회에 확산하는 데 성과를 낸 지자체들을 선정해 표창하는 자리다. 올해 심사는 기관 단위별로 분류해 중앙·광역·교육청 그룹, 기초자치단체 그룹으로 진행했다.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서면심사, 현지실사, 대면심사 등 총 3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 1곳, 국무총리 표창 2곳을 선정했다.

심사에서 군과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상생·화합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상시적인 대화 창구 운영, 청년 조



합일 정책으로 '가치 있게, 같이 감시다' 프로젝트 운영,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 조합원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 공무원 수가 현원의 50%인 상황에서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직급·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 형성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총리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매년 임실사랑상품권을 구매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국립임실호국원 무연고 묘소 지원봉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 농촌일손 돕기, 임실군애향장학회 장학금 기탁 등 노사뿐만 아니라 군민과 더불어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데 힘써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인월면,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 향상 최선

남원시 인월면(면장 황도연)은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 안정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월면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바우처 사용 마감 기한인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96명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100%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바우처 총액은 약 3천7백1만 3,600원으로, 이 중 사용된 금액은 약 1천5만 5,202원으로 평균 사용률은 27.2%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인월면은 사용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 15일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마을 이장과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내와 지원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화, 문자, 현장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잔액 소진을 독려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평등 순창군협의회 평화공감 통일강연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서애숙)는 5일, 순창한우명품관 연회장에서 보훈단체 및 지역주민, 자문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평화공감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유현주 강사를 초청해 먼저 온 통일의 북한 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유현주 강사는 현재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고정 출연 중이며, 통일메이커단 대표와 통일안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사는 자신의 북한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며 참석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리었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층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군과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